

# 傳記分類의 指針 (上)

李 丙 洙

國會圖書館圖書課司書官補

## I. 分類規程의 必要

圖書의 分類는 圖書館의 藏書를 論理에 맞고 體系가 서게 構成하여서 그 利用에 便宜함을 주자는데에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圖書의 分類는 知識의 分類에 따라야 함은 勿論이나, 知識의 分類가 論理的으로 徹底한 分類原則을 研究上的 한 方法으로 採用하여 固執하는데 反하여 圖書의 分類는 利用의 便利를 圖謀하려는 實用性을 重要視하는 것이다.

그러면 圖書利用의 便益을 圖謀하려는 圖書의 分類는 어떠한가. 말할 것도 없이 圖書의 內容 主題나 形式을 分類番號로 表示하는 作業이 正確해야 한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正確한 分類番號를 圖書의 主題와 形式에 알맞게 配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正確한 分類番號를 配定하기 爲하여서는 分類表를 徹頭徹尾 잘 理解하고 圖書의 內容診斷을 正確하게 잘 할 줄 알아야 할것은 勿論이고 여기에다 또한 分類表의 操縱法이며 運行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分類表를 다루는 約束인 分類의 原理가 되는 分類規程(規則)의 確立이다. 圖書館 藏書의 構成은 始終一貫하고 統一의이어야 한다. 藏書構成의 統一이란 것은 藏書全席의 一席을 차지하는 每個圖書를 體系마르고 統一

되게 排列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은 分類番號의 始終如一한 配當이 必要하다. 이렇지 못하고 A가 分類한 圖書와 B가 分類한 圖書가 同一書 또는 同一主題·形式의 것이면서도 各己 相異하게 分類되고 甚至於는 同一人이 分類한 同一書 또는 同一主題·形式의 圖書가 分類作業의 時間差로 말미아마 各己 相異하게 分類되어 配架케 되면 藏書의 組織이 散索하여 그 統一을 期約할 수 없고 그러한 結果는 分類의 本元的 目標인 圖書利用의 便宜함을 圖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弊端을 없애기 爲해서 分類規程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分類規程을 만들어야 한다는 意見에 分類表마다 使用의 註가 있는데 무슨 必要가 있는냐고 反對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贊成할 수 없는 일이다. 分類表란 것은 分類表編者의 全的으로 普遍性을 求하려는 各辭의 系列이다. 그렇기 때문에 分類의 實際에서 보면 어떤 小主題가 어떤 主題에 屬하는가 疑心스럽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分類表 自體의 固定性 때문에 新時代의 新主題에 關한 圖書를 어디다가 分類해야 할 것인가 하는 疑問이 생기게 된다. 또한 圖書의 內容에 關한 것으로 어떠한 圖書를 어떠한 方法으로 다른 圖書는 어디다 分類한다는 것을

明白히 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分類作業上的 約束이 分類規程인 것이다. 이 規程은 分類表 構成上的 規則이나 規格이 아니고 分類表의 運用上的 規則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分類規程이란 分類의 航路를 指示하는 航海指針이다. 分類表가 하나의 船體라면 規程은 그 배의 操舵法이고 分類表가 하나의 機械라면 分類規程은 그 機械의 操縱法이다. 航路에 航海指針이 있어야 하고 機械에 操縱法이 있어 各己 그 구실을 다 할 수 있듯이 分類表에는 그 運行法인 分類規程이 서 있어야 한다. 分類規程은 分類表에 관한 것은 表에 記載함과 同時에 成文化하고 圖書에 관한 것은 그대로 明文化해서 指針으로 삼아야 한다.

分類規程은 一般規程과 特殊規程으로 두 가지로 區分하는 것이 常例이며 一般規程은 모든 主題에 通用되는 것이고 特殊規程은 分類表의 特定の 類·綱·目과 特殊한 主題 圖書에만 適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圖書의 分類規程은 分類作業의 疑心을 解決하여 주는 意味에서 圖書分類의 實際의 方法을 意味하기도 한다.

다음에 圖書分類의 特殊規程에 屬하는 傳記의 分類方法을 말한다.

## II. 分類對象으로서의 傳記

### 定義 및 包容範圍

傳記(Biography)는 個人 또는 여러 사람의 生涯·言行·事蹟을 記錄한 것을 말한다. 그리스나 로마時代에는 宗教傳說의 인 聖徒傳·高僧傳 및 皇帝의 傳記 등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元來는 個人的 生涯와 言行을 墓誌나 史籍에 記錄하는 데에서 비롯하였다. 傳記는 어떤 사람의 生涯나

言行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와 自己의 生涯를 回顧하여 自己 自身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自己 自身이 쓴 것을 自叙傳(Autobiography)이라고 하며 이러한 自叙傳은 Renaissance 時代의 自由로운 表現이 始作하면서 비롯하였으며 傳記는 個人研究와 史料로서도 重要的 것이다.

分類上(圖書의) 傳記라 할 때는 個人的 生涯를 다른 別傳(Individual biography)과 여러 사람의 生涯를 함께 記錄한 總傳(叢傳이라고도 함 Collective biography) 및 傳記의 資料인 書簡·日記·言行錄·逸話·行狀·追悼錄·寫真集·傳記의 書誌 등을 다 包含한다. 그러나 傳記의 資料인 書翰 日記 등은 傳記로서 分類해야 할 경우와 文學으로 또는 主題로 分類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그 判斷을 잘 해야 한다. 日記나 書翰 등이 個人的 生涯의 研究資料로서 重要的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이 主題의 資料로서 重要的 것은 그 主題아래 分類해야 한다. 即 傳記의 資料로 되는 것은 根本의 으로 文藝·藝術의 또는 主題의 興味가 없는 것만이고 그것이 文學의 藝術의 또는 主題의 興味가 있는 것은 文學아래나 또는 그것의 主題아래 分類해야 한다.

### 別傳 및 總傳

傳記는 그것이 取扱하는 被傳者의 數에 따라서 別傳(各傳)과 總傳(叢傳)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分類에 있어서는 이것의 區別을 뚜렷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別傳과 總傳의 數의 區別은 大略 다음의 세 가지 見解가 있다.

1. 두 사람까지는 別傳, 세 사람 以上은 總傳이다.
2. 한 사람은 別傳이고 두 사람 以上은 總傳이다.

ㄷ. 세 사람까지는 別傳이고 네 사람부터는 總傳이다.

이 세 가지 見解中 어느것을 採用할 것인가는 各圖書館 特性과 形便에 依해서 決定할 것이지만 <ㄱ>의 見解 卽 두 사람까지를 別傳으로 보고 세 사람 以上을 總傳으로 取扱하는 것이 普遍的 傾向이다. 그리고 <ㄷ>의 세 사람까지를 別傳으로 네 사람 以上을 總傳으로 보는 理由는 <한圖書館에 3個 主題를 다룬 것은 最初의 主題아래나 또는 그 中の 가장 重要한 主題아래에 分類하고 4個 主題 以上을 다룬 圖書는 그것을 包括하는 大主題에 넣는다>는 規定에 따르는 사람들의 見解이다.

#### 傳記分類方法의 類型

傳記를 分類하는 法에는 大略 세 가지의 方法이 있다. 모든 傳記를 被傳者의 音順(가나다 ABC順等)으로 排列하는 方法, 傳記(例 D.D.C. 920)아래에 被傳者가 貢獻한 主題에 따라서 各各 區別하여 分類하는 것, 被傳者를 어디까지나 主題資料로 看做하고 傳記下의 區分된 主題가 아니라 傳記(例 D.D.C. 920) 以外의 被傳者가 貢獻한 主題와 함께 分類하는 方法이 있다.

K.D.C.는 傳記(一般)는 250—259에 分類하고 各 專門家傳記는 各主題아래 分類한다.

D.D.C.는 以上 세 가지 方法을 모두 말하고 各館의 事情에 따라 決定할 것을 勸하고 있다. 그것을 紹介하면 (1) 920을 總傳에 92 또는 Biography(傳記)의 頭字 B를 別傳에 使用하고 音順排列하는 方法 (2) 傳記(920)아래에서 被傳者가 貢獻한 主題內容에 따라서 區分하여 分類(例: 俳優의 傳記 927.92)하는 方法 (3) 被傳者

를 主題 資料로서 看做하고 各 主題아래에 形式區分記號 092를 주는 方法(例: 植物學者의 傳記 925.8)이다.

N.D.C.에서는 叢傳(總傳) 280, 各傳(別傳) 289로 區分하여 特히 哲學者, 宗教家 藝術家 및 文學者의 傳記는 그 사람과 主題가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 그 主題아래 包含하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方法의 어느 것을 選擇할 것인가는 各館의 特性에 依할 것은 勿論이지만 傳記의 被傳者를 主題資料로 보고 그 主題와 함께 分類하는 것은 專門圖書館에서 適用함이 좋고 公共圖書館에서는 傳記아래 分類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傳記를 主題資料와 同一視하여 被傳者가 貢獻한 主題아래 分類한다는 경우 困難한 點이 생긴다. 그것은 被傳者의 貢獻部門이 뚜렷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떻게 主題를 決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부딪힌다. 哲學者면 哲學에 植物學者면 植物學과 함께 分類하면 되지만 그 主題가 多樣으로 解釋되는 被傳者나 아무 主題도 넣을수 없는 無主題의 被傳者는 어떻게 할 것인가. 判斷이 曖昧해질 경우가 많다. 이러한 難點을 判定하는 方法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被傳者가 그 主題와 同一하다고, 생각되면 그 主題아래 分類한다. (2) 被傳者가 여러 部門에 亙해서 貢獻하여 한 主題에만 特出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 個人에 對해서 興味가 있는 사람은 一般傳記아래 分類한다. (3) 著者의 意圖가 個人傳記에 있는가 主題에 있는가 判定上 困難한 것은 그 主題아래 分類한다. 이렇게 세 가지 判斷法을 세우고 있지만 實際 分類해 보면 어떻게 決定을 해야 할지 容易치 않은 때가

있다.

그리고 傳記 및 傳記的 資料를 그 主題와 함께 分類하는 경우 D.D.C.와 같이 主題를 나타내는 分類記號 아래 形式區分記號<092>가 準備되어 있지 않거나 特別한 設定이 없으면 그 主題의 歷史와 함께 分類한다. 例를 들면 科學者의 傳記(資料)는 科學의 歷史와 함께 分類한다.

### Ⅲ. 傳記의 分類規程

#### 別傳

(가) 別傳은 分類表의 組織에 따라서 그 一部 또는 그 全部를 한 곳에 모아서 被傳者의 音順으로 配列하거나 主題에 따라서 分類하든가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傳記를 主題資料와 同一視하고 主題와 함께 分類할 것인가 一般傳記아래에 分類할 것인가는 各館의 事情에 따라서 決定할 일이지만 一般的으로는 藝術家·音樂家·畫家의 傳記는 다른 사람들의 傳記 보다도 그 主題인 藝術·音樂·繪畫가 함께 分類하는 것이 利用의 價値가 더 높다는 것이다.

例: (1) 톨스토이傳記 方春海著 大文社 891.73092 또는 891.7092 (主題와 함께 分類한 경우)

(2) 톨스토이傳記(上揭書) 828.917 (傳記 아래에 各主題에 따라 分類한 경우)

(3) 톨스토이傳記(上揭書) B 또는 92 Biography의 B.나 92만을 따서 分類하고 著者姓에 따라 音順排列하는 경우

※ 分類番號는 D.D.C. 16版에 依하였음

(나) 한 個人의 性格의 한 局面이나 그 特技 또는 社會活動의 한 面만을 다룬 傳記(例: 土木技術者로서의 李箱·數學者로서의 Russel·教育者로서의 孔子)는 그 考

察된 一面만의 主題아래에 分類하지 않고 傳記(例: 李箱·Russel·孔子)아래에 分類한다.

이 規程에 對한 理由로서 merrill은 <한 個人의 性格이란 分離할 수 없다. 特徵의 一部分을 보고 分類할 때 抽象的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들고 있다. 李箱은 土木技師였으나 病이 들어 文學을 하여 名聲이 났고 Russel은 數學者이나 哲學者로서 더 알려져 있다.

#### 自叙傳

(가) 筆者 自身の 生涯를 記述할 主旨으로 쓴 著作(例: 엘리노어·루즈벨트 自叙傳 李晶濤譯)은, 그 사람의 傳記아래 分類한다.

(나) 한 事件이나 歷史를 記述할 目的으로 쓴 著作은, 그 主題나 歷史에 分類한다.

#### 總傳

(가) 한 人物을 中心하여 많은 사람의 傳記를 包含한 著作은, 著者의 意圖가 中心人物의 特性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들을 紹介했으면 그 中心人物아래에 分類하고, 많은 人物을 各各 紹介함에 있으면 總傳아래 分類한다.

(나) 個人의 別傳을 모은 著作, 즉 總傳은 著者의 意圖가 한 主題의 特質을 나타내고 例證하기 爲한 것이면 거기에 記述된 人物이 如何한 사람이라도 그 主題아래 分類한다.

例를 들면 <前衛的 人道主義者傳>란 著作에 Bacon이나 Hobbes같은 哲學者가 包含되었다 하여도 <人道主義>아래 分類한다.

(다) 한 民族의 人物總傳은 그들의 母國아래 넣지 않고 住居하고 있는 나라 아

래 分類한다.

例를 들면 英國에 살고 있는 獨逸人의 總傳을 分類하여 地理區分을 하여 주는 경우 獨逸人의 總傳(K.D.C. 2550 또는 2562 D.D.C. 16版 920.043)이 아니고 英國人總傳(K.D.C. 2550 또는 2561·D.D.C. 16版 920.42)아래 分類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라) 두 사람의 傳記를 다룬 著作은 最初의 人物아래 分類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 後者가 더욱 重要하면 後者아래 分類한다.

### 傳記가 붙은 書誌

(가) 書目에 著者の 傳記를 附記하거나 包含한 것으로 書誌와 傳記를 兼한 것은 書目아래 分類한다.

(1) 한 나라의 作家에 限한 것은 地方 書目 또는 國別書目(D.D.C. 015)아래 分類한다.

(2) 한 類層(例: 植物學者)이나 한 宗派에 限한 경우는 그 主題의 書目(D.D.C. 16)아래 分類한다.

### 統治者傳記

(가) 王·天皇等 世襲的 統治者의 傳記는 分類法의 組織에 따라서 그 治代의 歷史아래나 傳記아래 分類한다.

代法: 王·天皇과 같이 世襲的 統治者의 傳記는 그 治代의 歷史아래 分類한다. (merrill)

例: 世宗大王傳記 金道泰 著 教養文庫 刊行會 (1) 傳記아래 分類한 것. D.D.C. 16版 923.151902 D.D.C. 15版 923.09519

(2) 歷史의 治代아래 分類한 경우 K.D.C. 2151 : D.D.C. 16版 951.902 15版 951.9

D.D.C.(15.16版)는 傳記(923)아래 分類한다. 16版은 923.1에 930—999처럼 區分한다는 注가 있다. N.D.C.는 이것들의 家

傳은 288.4(皇室)아래 分類한다.

現代의 王은 世襲的 王이라 하는데도 하나의 國家的 象徴으로서 王位繼承의 形式만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옛날의 王은 아무리 私的인 일이라도 國家의 全體에 波紋을 주는 威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王의 生涯는 自然이 그 나라의 歷史와 關係가 깊을 뿐 아니라 王의 存在가 바로 그 나라의 歷史自體로 解釋되기도 쉽다. 이런 意味에서 世襲王의 傳記는 傳記下에 보다는 그 나라의 歷史아래 分類함이 妥當하다.

(나) 選舉에 依한 統治者의 傳記는 傳記아래 分類한다.

例: 라몬·막사이사이傳 敬준 著 성문학사 D.D.C. 16<sup>th</sup> ed., 923.191404

D.D.C. 15<sup>th</sup> ed., 9230.9914

한 個人의 大統領의 在職期間은 그 生涯의 짧은 한 토막이며 그 在任期間은 그 나라의 歷史에 一部分을 차지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生涯全部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歷史와 함께 分類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神聖로마帝國의 皇帝」는 어느 程度 選舉에 依하는 것이 있어도 「世襲的 統治者」로 보고 (가)와 같이 取扱한다.

### 回想錄

(가) 自叙傳體의 回想은 決定的으로 歷史的인 點이 뚜렷하지 않으면 傳記아래 分類한다.

例: 文酒半生記——文·學·教壇 四十年의 回想——梁柱東 著 新太陽社 傳記로 取扱한다.

(나) 傑出한 人物(男女)의 回想錄은 歷史的 事件, 治世等을 말하지 않으면 傳記아래 分類한다.

〈모든 個人傳記를 說明된 主題아래에 分類表에 따라서 分類하는 경우만을 除外하고는 回想錄은 個人的 生涯를 말함에 있어 가장 좋은 資料이니 傳記에서 빼놓아서는 안된다.〉(merrill)

### 個人的 體驗記

(가) 個人的 要素가 첫째로 될 만큼 著者が 傑出하면 傳記아래 分類한다.

한 戰爭에서의 兵士의 個人記 開拓生活의 回想錄, 外國旅行記等 그 說話者에 全生涯에 對한 것은 그 傳記아래 分類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主題아래 分類한다.

個人的 日記나 書簡은 傳記에 分類하는 것이 常規이다. 그러나 「南北戰爭」과 같이 한 戰爭時의 한 兵士의 日記는 그 記錄者가 有名치 못하면 傳記에 보다는 歷史에 分類함이 더 意義가 있다. 그와 反對로 한 將軍이 썼다면 그의 名聲 때문에 傳記아래 分類한다. 또한 旅行記는 個人的인 事件이나 그 著者의 個人的 資料는 訪問한 地方에 對한 記事마다 重要치 않다. 이러한 點에서 旅行記는 旅行에 넣고 傳記아래 넣지 않는다.

(나) 旅行 또는 歷史에 對한 個人的인 이야기는 傳記아래 分類하지 않고 나라 또는 地方아래 分類한다.

著者の 意圖는 언제나 그 곳의 事情을 알리는데 있으며 讀書의 興味도 特殊하게 傑出한 사람이 아니면 그 著者에 있지 않다.

(다) 戰爭中 한 聯隊에서 奉仕한 個人的인 이야기는 聯隊의 歷史에 分類하지 않

고 그 戰爭아래의 個人이야기로서 分類한다.

### 俳 優

俳優(男·女)의 傳記·紀行·回顧錄·覺書·其他同種의 著作은 傳記아래 分類하고 그 關係하고 있던 劇場의 歷史等의 아래 넣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個性은 顯著하며 興味の 小心도 그것에 있다〉(merrill)

### 美術家

美術家의 作品으로 美術의 한 分野에 限한 作品(例: 彫刻)에 關한 評論은 美術家의 傳記아래 分類하고 美術의 分野(例: 彫刻)아래 넣지 않는다.

### 音樂家

(가) 音樂家(作曲家·演奏家)의 各傳으로 傳記와 그 作品을 모아 批評한 著作은 그 傳記아래 分類한다.

(나) 作曲家의 作品에 對한 批評은 分類表의 組織에 따라서 그의 傳記나 또는 그의 著作과 함께 分類한다.

(다) 한 特殊種類(例: 쇼나타)에 限定된 單獨作 또는 類似한 作曲集은 作曲家의 傳記와 함께 分類하지 않고 그 音樂의 種類의 批評아래 分類한다.

例를 들면 〈베토펴의 피아노 쇼나타 奏鳴曲解說〉(Beethoven's pianoforte sonatas explained, by Ernst von Elterlein)은 쇼나타의 아래 分類하고 〈모차르트의 歌劇의 批評的 研究〉(Mozart's opera, critical study, by Edward J. Dent.)는 歌劇아래 分類한다. (다음號에 계속)